



환율 하락에 따른 긍정적 영향 주가에 반영되어야

은행 Weekly | 2026.8.3

Analyst 최정옥,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전주 주요 뉴스 기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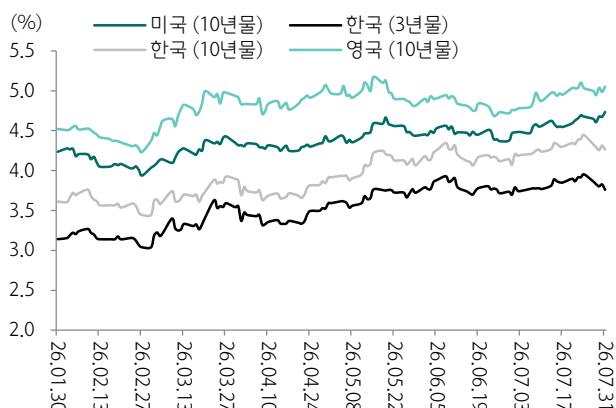
- BNK금융과 JB금융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양사 합병 타당성을 검토해달라는 제안을 거부. 얼라인파트너스는 두 금융그룹이 합병할 경우 자산나 234조원 규모의 대형사가 탄생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AI 대규모 투자 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합병을 제안
- 쿠팡이 우리은행과 손잡고 원화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실시간 결제·정산 기술 검증을 완료. 연간 77조원대 결제망을 보유한 국내 최대 유통 플랫폼과 결제 인프라를 갖춘 시중은행이 손잡으면서 원화스테이블코인 주도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
- 금융당국이 은행권 ETF 신탁수수료 체계가 고객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 방안을 들여다볼 예정. 대부분의 ETF 거래가 6개월내 매도(94.6%)하는 단기거래임에도 단기거래에 불리한 선취수수료가 91.7%를 차지한다는 지적
-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전 금융업권의 예금보험료 인상을 추진. 지난해 9월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뒤 예금보험기금 재원 확충을 위한 후속 조치. 은행 예보료율도 현행 0.08%에서 소폭 인상 예정

Valuation, Performance 및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2026년 7월 31일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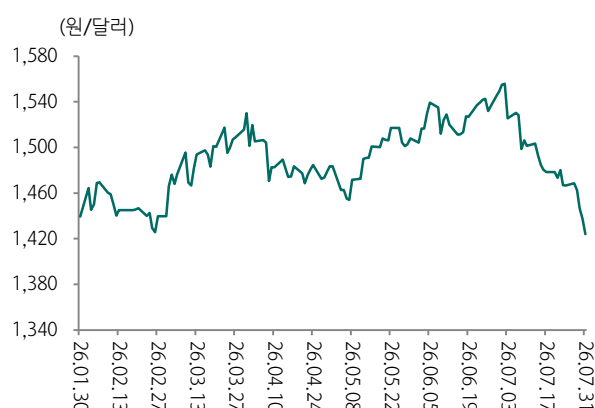
	PBR (2026F)	PER (2026F)	ROE (2026F)	ROA (2026F)	Mkt. Cap. (bil.)	Performance (%)				Weekly Net Buy (십억원)			
						1W	1M	3M	YTD	국내기관	(연기금)	외국인	개인
KOSPI	1.54	6.7	23.1		5,445,193.7	-1.4	-22.2	-0.1	56.5	6,000.2	927.4	1,511.3	-7,910.3
은행	0.69	7.9	9.0	0.64	205,244.7	-2.2	6.8	-0.2	25.3	221.9	4.7	-199.7	-35.3
KB 금융	0.92	9.0	10.4	0.79	59,764.9	-1.7	6.0	5.0	35.1	81.0	2.2	-107.1	16.3
신한지주	0.76	9.1	9.5	0.68	47,273.6	-3.5	5.1	0.8	30.9	1.8	-14.3	-10.8	6.3
우리금융	0.60	7.6	8.3	0.52	24,463.8	8.9	15.9	0.7	20.0	60.1	26.2	37.5	-95.1
하나금융	0.68	7.8	9.3	0.64	34,405.7	-5.3	9.4	-2.0	33.3	38.7	-11.6	-59.7	20.2
기업은행	0.44	6.0	7.5	0.54	16,466.8	-3.3	3.8	-8.6	-1.4	12.5	3.2	-12.0	0.4
BNK 금융	0.41	5.8	7.4	0.50	4,707.7	-15.9	-11.0	-19.0	-4.4	17.6	-1.4	-41.0	20.7
iM 금융	0.41	5.5	7.5	0.47	2,684.3	-7.1	0.8	-11.3	9.0	8.3	0.3	-8.3	-0.5
JB 금융	0.75	6.5	12.1	1.00	4,933.5	-1.7	6.7	-3.1	3.1	1.9	0.1	1.8	-3.7
카카오뱅크	1.48	18.3	8.3	0.72	10,544.4	0.2	5.7	-9.2	2.3	2.0	-2.2	7.5	-9.3
삼성카드	0.60	8.7	7.0	1.90	5,445.4	-3.7	-2.0	-11.8	-15.9	4.1	0.3	-3.2	-0.2

최근 6개월 글로벌 금리 추이



주: 국고채 10년물 기준, 한국은 3년물과 10년물

최근 6개월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전주 평가와 금주 전망

- 전주 은행주는 2.2% 하락해 KOSPI 하락률 1.4%를 소폭 초과하락. 반도체 주가 급등락에 따라 KOSPI가 역대급 변동성을 보였지만 은행주는 주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으며, KOSPI가 금요일 18%의 상승률을 보인데 반해 은행주 상승 폭은 매우 미미해 주간 단위로는 소폭 초과하락세를 나타냄. 또한 지난주 은행주 약세에는 전주에 실적을 발표했던 중소형은행들이 상당히 부진한 순익을 시현했던 점도 한 이유였음. 전주 미국 국채금리는 장단기 금리의 차별화 현상 발생. 미국 워시 연준 의장은 7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물가안정 의지를 재확인하는 발언을 했지만 정작 금리 인상 의지는 드러내지 않으면서 2년물 국채금리는 하락한 반면 시장에서 워시 의장의 인플레이션 관리 의지에 대한 의심 및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면서 장기물은 추가 상승. 전주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4.26%로 8bp 하락했고, 10년물 국채금리는 4.72%로 한주간 4bp 상승. 반면 국내 국채금리는 큰폭의 하락세 나타냄. 세계국채지수 자금 유입 기대와 더불어 다음달 국고채 발행계획에서 초장기물 발행이 줄어든 점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점도 채권시장에 강세 요인으로 작용 중. 국내 3년물 국채금리는 3.76%로 한주간 20bp 하락했고, 10년물은 4.26%로 19bp 하락. 한편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중. 미국 FOMC 회의 결과로 인한 미국 달러화 약세 흐름에다 SK하이닉스의 외환시장 달러 공급과 일본 당국의 개입으로 엔달러 환율이 급격한 현상 등도 영향을 미친 듯. 결국 환율은 1,435.5원까지 낮아지며 한주간 23.0원 추가 하락. 외국인들은 지난주 KOSPI를 1.5조원 순매수했지만 은행주는 2,000억원을 순매도했고, 국내 기관은 KOSPI와 은행주를 각각 6.0조원과 2,220억원 순매수. 지난주 은행지주사들의 자사주 매입분은 총 1,000억원 내외였던 것으로 추정됨
- 전주 특징주는 우리금융. 1분기 부진한 실적 발표 이후 줄곧 약세를 보이던 주가는 2분기 호실적 발표와 경쟁사 대비 부각된 큰폭의 가격 매력 등으로 한주간 8.9% 상승해 상대적 초강세 시현. 지난주 한주간 약 680,000주의 자사주 매입이 이루어진 점도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듯. 반면 BNK금융은 주가가 15.9% 폭락.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실적이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해 부진했던 데다 건진법사와 관련된 금융권 인사개입 의혹 등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점도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외국인들은 지난 한주동안에만 BNK금융을 약 410억원 순매도하면서 주가 하락을 부채질
- 홍콩 ELS 제재안이 31일 정례회의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당초 금번 회의에서는 최종 제재 수위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됐지만 추가 감경 여부를 둘러싼 금융위 내부의 의견차가 크다는 것이 의결이 미뤄진 이유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 따라서 과징금 환입이 2분기 실적에 소급 적용될 가능성은 없어졌음. 늦어도 9월 전에는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KB금융과 하나금융은 과징금 환입이 3분기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고, 2분기에 과징금을 837억원 환입한 신한지주도 추가 감경 여부에 따라 더 환입될 여지가 있음. 과징금 추가 감경을 두고 내부 이견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추가 감경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판단. 3분기 상당폭의 일회성 이익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높은 편
- 원/달러 환율이 1,435원대까지 하락하면서 2분기말에 비해 114원이나 하락한 상황. 현 환율이 분기말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하나금융과 기업은행은 3분기 중 1,000억원 이상씩의 외화환산이익 발생이 예상되며, 우리금융도 외화환산이익이 700억원 이상 발생 가능. 손익 영향 뿐만 아니라 CET 1 비율에도 긍정적인 영향 예상. KB금융과 우리금융, 하나금융 등은 현 환율 수준 유지 가정시 3분기에 CET 1 비율이 약 25~30bp 상승하는 효과 발생. 이는 주주환원 추가 확대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요인. 물론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할 경우 상기의 긍정적 효과가 다소 줄어들 수는 있지만 현 상황상 원/달러 환율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음. 따라서 환율 하락이 가져오는 긍정적 영향이 은행주 주가에 온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
- 증권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은행 NIM도 예상외로 추가 상승하지 않으면서 은행 2분기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다만 NIM은 소폭이나마 다시 상승세를 보일 공산이 크고, ELS 과징금 환입에다 환율 하락에 따른 외화환산익 발생까지 감안할 경우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양호할 가능성이 높음. 반도체업종 주도주 재부각시 상대적인 약세는 불가피하겠지만 실적 안정성 높고, 매크로 지표 등도 은행주에 우호적이라는 점에서 은행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는 기존 의견을 유지

주간 선호 종목 - 주간 단위의 단기 선호 종목으로서 당사 최선호 종목 및 중장기 선호 종목과는 다를 수 있음

BNK금융(매수/TP 24,500원), iM금융(매수/TP 24,500원)

- BNK금융은 주가 급락으로 PBR이 현재 0.41배 수준까지 하락. 계속된 어닝 쇼크로 인해 이익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훼손되었지만 그럼에도 경성 펀더멘털 감안시 최근 주가 하락은 너무 과도한 상황. 주가 하락 폭의 일정부분은 되돌림 예상
- BNK금융 주가 급락으로 iM금융도 도매금으로 주가가 상당폭 동반 하락. 2분기 실적이 양호했던 것은 아니지만 CET 1 비율이 크게 상승했고 하반기 자사주 매입 규모도 확대 예상. BNK금융과 같이 PBR 0.4배 수준에 불과해 저평가 매력에 높다고 판단

Global Peer Table

(2026년 7월 31일 종가 기준)

	PBR (2026F)	PER (2026F)	ROE (2026F)	ROA (2026F)	Mkt. Cap. (bil.)	Performance (%)			
						1W	1M	3M	YTD
KOSPI	1.54	6.7	23.1		5,445,193.7	-1.4	-22.2	-0.1	56.5
은행	0.69	7.9	9.0	0.64	205,244.7	-2.2	6.8	-0.2	25.3
KB금융	0.92	9.0	10.4	0.79	59,764.9	-1.7	6.0	5.0	35.1
신한지주	0.76	9.1	9.5	0.68	47,273.6	-3.5	5.1	0.8	30.9
우리금융	0.60	7.6	8.3	0.52	24,463.8	8.9	15.9	0.7	20.0
하나금융	0.68	7.8	9.3	0.64	34,405.7	-5.3	9.4	-2.0	33.3
기업은행	0.44	6.0	7.5	0.54	16,466.8	-3.3	3.8	-8.6	-1.4
BNK금융	0.41	5.8	7.4	0.50	4,707.7	-15.9	-11.0	-19.0	-4.4
IM금융	0.41	5.5	7.5	0.47	2,684.3	-7.1	0.8	-11.3	9.0
JB금융	0.75	6.5	12.1	1.00	4,933.5	-1.7	6.7	-3.1	3.1
카카오뱅크	1.48	18.3	8.3	0.72	10,544.4	0.2	5.7	-9.2	2.3
삼성카드	0.60	8.7	7.0	1.90	5,445.4	-3.7	-2.0	-11.8	-15.9

미국

S&P 500	5.04	21.2	22.4	5.87	66,854.1	0.4	-0.8	3.5	9.4
은행	1.72	13.1	13.2	1.15	2,327.2	0.1	4.7	10.6	9.0
Wells Fargo	1.53	12.5	13.3	1.03	261.4	-0.9	3.4	4.5	-7.2
JPM	2.55	14.3	18.8	1.38	942.6	0.3	7.7	12.5	9.2
CITI	1.12	11.9	9.9	0.71	225.9	0.3	-5.5	3.9	13.5
BOA	1.53	13.3	12.2	0.99	433.2	0.7	8.3	16.1	12.6
US Bancorp	1.56	12.1	13.4	1.18	98.2	-0.7	4.1	12.0	18.1
PNC	1.66	13.0	13.2	1.28	100.3	-0.2	1.8	12.4	19.7
BB&T	1.05	11.3	9.5	1.06	63.3	1.6	4.4	2.1	5.3

중국

상해A주지수	1.34	13.7	10.0	1.42	61,512.9	0.5	-5.9	-5.6	-3.4
은행	0.70	7.6	9.4	0.69	12,565.3	3.1	13.1	6.6	-3.2
공상은행	0.69	7.8	9.0	0.68	2,715.4	3.1	13.0	9.8	0.8
건설은행	0.76	8.2	9.6	0.73	2,136.1	5.8	14.9	11.2	16.9
농업은행	0.82	8.5	9.8	0.59	2,369.8	3.6	13.7	1.7	-10.2
중국은행	0.68	8.1	8.5	0.64	1,842.5	0.8	8.1	7.5	5.8
교통은행	0.52	6.7	7.8	0.62	610.9	2.0	14.5	8.3	-1.0
초상은행	0.84	6.6	12.9	1.13	1,018.5	1.1	14.6	6.3	-5.9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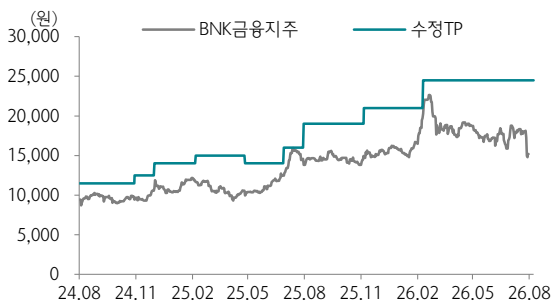
NIKKEI	2.78	21.5	12.7	4.51	1,023,307.7	-0.4	-8.1	8.6	27.9
은행	1.33	13.2	10.0	0.56	141,394.7	-5.2	7.7	21.8	40.9
Mitsubishi UHF	1.89	18.0	10.8	0.61	42,379.6	-4.9	11.4	26.8	43.2
Sumitomo Mitsui Financial	1.67	16.4	10.8	0.61	26,091.8	-4.8	7.4	23.6	35.2
Mizuho	1.81	16.8	11.4	0.43	19,950.6	-5.6	5.5	21.5	43.3
Sumitomo Mitsui Trust	1.38	15.3	9.3	0.37	4,623.3	-2.9	9.2	27.8	38.5

유럽

MSCI Europe	2.39	16.1	14.2	1.76	15,601.0	1.6	1.1	7.7	9.8
은행	1.58	11.8	13.6	0.73	2,215.7	3.4	6.0	19.3	20.9
HSBC	1.94	12.5	15.4	0.84	270.8	3.9	10.9	18.3	34.3
Santander	1.66	11.9	13.7	0.79	180.9	2.8	1.9	18.7	22.3
BNP Paribas	0.99	9.4	10.9	0.45	120.8	3.5	7.4	26.5	35.7
Credit Agricole	0.79	8.5	9.7	0.28	58.3	4.2	9.5	24.2	9.8
Deutsche	0.90	9.6	9.7	0.45	60.9	4.7	7.8	24.7	-3.8
Unicredit	1.81	11.1	17.0	1.24	123.1	1.5	4.3	24.4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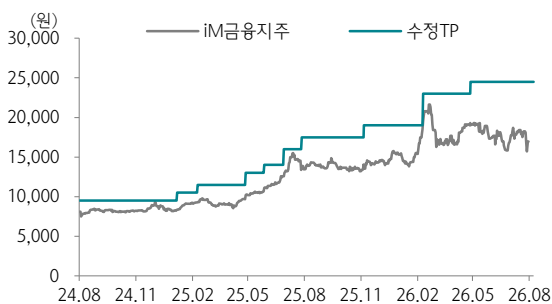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BNK금융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2.11	BUY	24,500		
25.11.7	BUY	21,000	-24.78%	-6.19%
25.8.1	BUY	19,000	-23.37%	-17.89%
25.6.30	BUY	16,000	-7.88%	-0.31%
25.4.28	BUY	14,000	-20.70%	-9.21%
25.2.7	BUY	15,000	-28.96%	-21.27%
24.12.2	BUY	14,000	-20.72%	-13.14%
24.10.31	BUY	12,500	-22.39%	-15.52%
24.5.2	BUY	11,500	-21.47%	-10.52%

iM금융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4.29	BUY	24,500		
26.2.11	BUY	23,000	-21.75%	-5.87%
25.11.7	BUY	19,000	-21.91%	-2.58%
25.7.29	BUY	17,500	-20.98%	-15.09%
25.6.30	BUY	16,000	-10.24%	-3.06%
25.5.29	BUY	14,000	-16.30%	-10.14%
25.4.29	BUY	13,000	-19.30%	-17.77%
25.2.10	BUY	11,500	-19.99%	-15.04%
25.1.8	BUY	10,500	-14.72%	-11.62%
24.6.25	BUY	9,500	-13.31%	-1.79%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하나금융지주의 계열사입니다.
- 당사는 2026년 8월 3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2026년 8월 3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 의견 비율공시

- 투자 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8.63%	1.37%	0.00%	100%

* 기준일: 2026년 7월 31일